

BTCC

“신규 유저 한정

BTCC에 가입 및 입금하고 최대 17,500 USDT를 받으세요!
친구 초대 시 더 많은 리베이트 획득 가능



지금 가입

미연준, 기준금리 4연속 동결... 인하시점은?

원문:

<https://www.btcc.com/ko-KR/academy/financial-investment/us-federal-reserve-freezes-base-interest-rate-when-will-it-be-cut>

미국 연방준비제도(연준)는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가진 뒤 기준 금리를 연 5.25~5.50%로 동결한다고 밝혔다. 지난해 9월부터 이번 회의까지 4연속 동결이다.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으로 밝혔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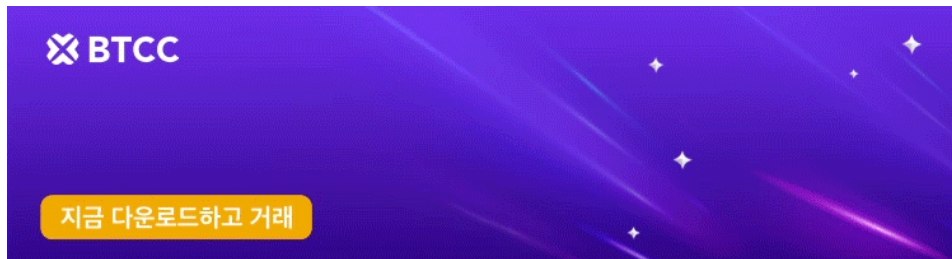
기준금리 4연속 동결

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는 31일 5.25~5.5%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. 연방공개시장위 성명은 “연방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를 조정할 때 앞으로의 경제 데이터와 향후 전망 및 위험 요소

들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하겠다”고 밝혔다.

연방공개시장위는 단행 시점이 초점이 되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에 관해 “물가 상승률이 2%로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확신”이 생기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. 또 “고용과 물가 목표의 균형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”면서도 경제 전망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.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 상승률은 3.4%였다.

이번 회의를 앞두고 관심을 모은 포인트는 과연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지 여부였다. 지난해 12월 이미 연준이 올해 3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취지로 밝혔기 때문에 올해 3월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.



[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](#)

[iOS 버전 다운로드](#)

[신규 유저 한정 이벤트\(입금 및 거래 시 10,055USDT 보상\) <<<<](#)

제롬 파월 연준 의장, 기준금리 3월 인하엔 부정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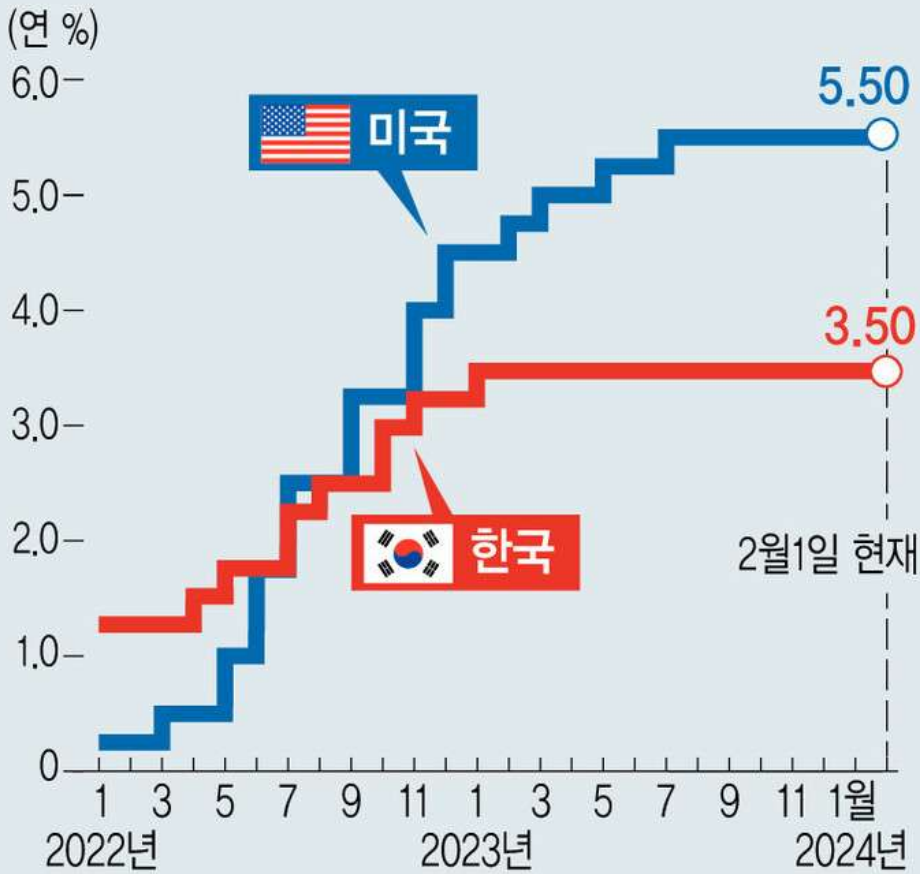
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이사회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“기준금리는 정점에 도달한 것 같다”며 앞으로는 언제 내리느냐가 문제라고 밝혔다. 하지만 “연방공개시장위가 3월 회의 때까지 (기준금리를 내려도 된다는) 확신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”며 “우리는 좋은 데이터를 더 많이 보고 싶다”고 했다.

연준이 정책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건 강한 성장세 때문이다. 고금리에도 미국 경제는 회복 흐름이 뚜렷하다. 지난해 4분기 미국 국내총생산(GDP) 증가율(속보치)은 3.3%(연율 기준)다. 미 월스트리트저널(WSJ)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(2.0%)를 뛰어넘었다. 반면 물가는 아직 불안한 상황이다. 지난해 12월 미국 근원 개인소비지출(PCE) 가격지수(연준이 핵심 지표로 간주하는 물가지수) 상승률은 2.9%로 연준 목표치(2.0%)를 여전히 웃돌고 있다.

3월19~20일 회의 때까지는 물가가 상당히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등 ‘인플레이션과의 전쟁’에서 승리의 확신을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. 이는 3월보다는 5월 인하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.

한·미 정책금리 추이

자료: 미국 연방준비제도, 한국은행 ※미국은 상단금리 기준



금리 인하시점은?

시카고상품거래소(CME)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전날까지만 해도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41%로 봤지만, FOMC 회의 이후 35%가량으로 내려갔다. 반면 5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전날의 85%에서 95%로 뛰어올랐다.

현재로서는 시장이 3월보다는 5월 인하 가능성을 한층 유력하게 보고 있는 셈이다. 또한 5월 금리 상단 전망은 5.25%가 51.2%로 과반이고 5.0%가 37.2%로 뒤를 잇고 있다. 현 수준으로 동결 전망은 10.8%에 불과하다.

또 로이터통신이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왔다.

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스텐튼 폴 등은 “연준이 향후 몇 달간 금리 인하로 나아갈 무대가 마련됐다”면서 “연준이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3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”고 말하기도 했다.

향후에 나올 물가 등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연준이 언제 금리인하에 대한 확신을 가질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.

관련페이지:

[미 연준, 금리 0.25%p 인상...금값·비트코인 ↑](#)

[미 연준, 기준금리 0.25%P 또 인상...한미 금리차 1.75%P](#)

[금값 전망, 월가 “2300달러도 가능”...5월 금리인상 마무리 기대](#)

[미 연준, 금리 0.25%p 인상...파월 “연내 인하 없다”, 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](#)

[한은, 기준금리 연 3.5%로 동결...올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까?](#)

더 많은 내용은 [BTCC 뉴스](#) 및 [BTCC 아카데미](#)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BTCC 가입혜택

BTCC는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가입하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합니다. 지금 가입 및 거래하면 최대 **10,055USDT**를 받을 수 있다. 또한 입금 금액에 대비 VIP 등급 높을 수 있다(입금↑ VIP↑).VIP가 되면 거래 수수료 할인 또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.

[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](#)

BTCC 거래소

- 12년 보안 무사고
-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획득한 믿음직한 거래소
- 전세계 규제 준수
- 세계 최저 수수료 **(0%)**
- 최대 225배 레버리지 제공
- 무료 모의 거래 가능
- 풍부한 유동성 및 오더북
- 토큰화 주식 및 암호화폐 출시
- 원화입금 지원
- 24x7 시간 한국어 고객센터 제공
- 최신 시장 동향 및 투자 교육 제공
- PC/모바일 거래 가능
- 다양한 이벤트